

행동억제기질이 성인기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영향: 성장기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지각된 불안통제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윤재진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박기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행동억제기질이 성인기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성장기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지각된 불안통제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5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처벌민감성척도(SPQ), 가정폭력노출척도, 개정된 한국판 불안통제질문지(K-ACQ), 스트레스 시나리오, 스트레스반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스트레스 시나리오인 예비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연구대상자들이 동일한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내는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연구 분석 결과, 행동억제기질은 지각된 불안통제감을 통해 스트레스반응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정폭력노출경험은 행동억제기질을 통제한 후에도 지각된 불안통제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정폭력노출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경우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불안통제감을 통해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낮은 지각된 불안통제감에 대한 통합적 발달모형을 제안하여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행동억제기질, 지각된 불안통제감, 스트레스반응, 가정폭력노출경험, 조절된 매개효과

[†] 본 연구는 201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수정·정리한 것이며, 일부 내용은 2016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박기환, (1466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2-2164-4924, E-mail: psyclinic@catholic.ac.kr

초기 성인기는 생활환경과 발달과업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개인은 부모의 보호와 학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며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스트레스 사건은 크게 당면과제 스트레스 사건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면과제 유형의 스트레스 사건은 학업, 진로, 경제, 가치관 및 종교 문제와 같이 현재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관련된다. 대인관계 영역의 스트레스 사건은 친구, 가족, 이성, 교수 등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구성된다(김교현, 전경구, 이준석, 2000). 특히 초기 성인기는 독립적인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시기로 다양한 당면과제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스트레스 자극은 일시적인 신체적, 심리적 불균형 상태를 초래한다. 또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 심적 자원이 고갈되며 이는 다양한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유발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생활사건과 질병 사이의 상관은 .30 정도로 추정되며(김정희, 1987; Kessler, Price, & Wortman, 1985; Kobasa, Maddi, & Khan, 1982),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적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음을 강조해왔다. 스트레스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은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그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스트레스 상황을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 사건이 큰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반면, 스트레스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것은 회피지향적인 대처를 야기하며

불안과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인 스트레스반응을 유발한다(Folkman & Lazarus, 1985). 이처럼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지각된 통제감은 스트레스 경험과 부적응적인 스트레스반응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였다(최미경, 조용래, 2005; Bollini, Walker, Hamann, & Kestler, 2004; Grote, Bledsoe, Larkin, Lemay, & Brown, 2007). 특히, 불안통제감은 Rapee, Craske, Brown과 Barlow(1996)가 정의한 불안 관련 사건에 대한 통제감 개념으로, 외부 위협과 신체 및 정서적 반응에 대하여 개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여러 연구자들은 우울 및 불안장애 등의 정서 문제가 외부의 스트레스 자극이나 내부적으로 생성된 감각에 대한 통제력 결여, 즉 낮은 불안통제감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Gallagher, Bentley, & Barlow, 2014; Kashdan, Barrios, Forsyth, & Steger, 2006; Rapee et al., 1996; Viana & Gratz, 2012). 따라서 낮은 불안통제감과 같은 개인의 인지적 취약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기질과 환경적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성인기 심리적 문제로 발현되는 과정을 밝히는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행동억제기질은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행동 특성으로 처음 접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 혹은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일관적으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기질적인 양식을 말한다(Kagan, 1994; Kagan, Reznick, & Snidman, 1988). 행동억제된 아동들은 낮설고 위협적인 것에 대한 반응 역치가 낮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감신경계의 강한 각성과 불편감을 경험하고 위축감을 느낀다(Kagan, Reznick, & Snidman, 1987). Mezulis, Hyde와 Abramson(2006)은 기질

적으로 억제된 아동들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마주하였을 때 그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추론을 하여 부적응적인 인지적 양식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행동 억제된 아동들이 불편한 상황에서 위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회피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의 범위를 축소시킨다(Berkman, Lieberman, & Gable, 2009; Corr & Perkins, 2006). 회피적인 대처는 당장의 불안을 감소시키지만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회를 제한시키며, 결론적으로 외부적, 내부적 사건에 대한 통제감의 발달을 방해한다(이혜진, 2004). 선행 연구에 따르면, 행동억제기질이 신경증, 정신증, 신체적·인지적·행동적 불안(Torrubia, Avila, Moltó, & Caseras, 2001), 사회불안(Coplan, Wilson, Frohlick, & Zelenski, 2006), 우울(Pinto-Meza, Caseras, Soler, Puigdemont, Perez, & Torrubia, 2006) 등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우울, 불안, 사회불안, 자해행동 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이혜림, 2013, 허다연, 이기학, 2017; 최지수, 양재원, 2018).

몇몇 연구자들은 행동억제기질과 부적응적인 심리적 증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잠재적 기제로서 인지적 요인의 매개 역할을 제안하였으며, 낮은 지각된 불안통제감이 부분적으로 행동억제의 결과임을 검증하였다(Baron & Kenny, 1986; Lonigan & Phillips, 2001). 또한 Viana와 Gratz (2012)는 행동억제가 지각된 불안통제감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지각된 불안통제감은 기질적 요인인 행동억제와 불안 증상들을 매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행동

억제기질이 지각된 불안통제감을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오윤희, 2006), 최근 연구에서 불안 통제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특정 사회적 상호작용 및 수행 상황에서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 통제 불가능성으로 해석 편향을 측정하여 행동억제가 해석 편향을 완전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김수진, 박기환, 2017).

한편, 극단적으로 주어진 환경은 개인의 기질을 압도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타고난 기질은 환경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이(Cloninger & Svrakic, 1997), 기질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적 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동들에게 가족환경은 그들의 개체발생적 발달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동인이 된다(Sturge-Apple, Davies, Cicchetti, & Manning, 2012). Chorpita와 Barlow(1998)는 성장기 시절 통제감을 감소시키는 개인의 역사가 누적되어 낮은 불안통제감이라는 심리적 취약성으로 발달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즉, 발달 시기 동안 통제할 수 없는 위협적인 사건들이 반복되면 개인은 낮은 통제감과 관련한 인지적 틀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여러 스트레스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경향성이 증가한다.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낮은 불안 통제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 주로 부모의 과보호, 심리적 통제와 같은 양육 행동에 주목해 왔으나(김경원, 양수진, 2018; Ollendick & Grills, 2016), 일부 연구자들은 성장기에 가정 폭력과 같이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스트레스 사건이 삶을 예측할 수 없고 위협적인 것으로 만들며, 결과적으로 자기-통제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Cerezo &

Fraias, 1994).

가정폭력이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언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Straus, Gelles, & Smith, 1990).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한 경우와, 부모 간의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가정폭력노출경험'이라는 용어를 선호해왔다(김재엽, 조학래, 양혜원, 2003). 가정폭력과 개인의 통제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Umberson, Anderson, Glick과 Shapiro(1998)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폭력행위에 대한 무기력과 무망감을 느끼며 이는 개인적 통제감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부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은 폭력에 무기력해진 엄마(폭력의 피해자)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폭력을 막지 못하는 데 있어서 무능감과 무기력을 느낄 수 있다(최혜정, 2012). O'Brien, Cohen, Pooley와 Taylor(2013)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시절 부부폭력을 목격했던 대상자들은 과거의 가정환경을 '스트레스를 주는', '긴장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하였고, 아동으로서 그 상황

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던 무력감을 보고하였다. 즉, 폭력적인 가정 문화에서 자란 아동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위협적이고 불안을 조성하는 자극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의 반응이 폭력적인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더욱이 Belsky의 변별적 감수성 가설(2005)에 의하면 부정적 환경 입력에 민감한 신경체계를 가진 아동들이 덜 민감한 아동들보다 부정적 경험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긍정적 경험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기질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된다. 선행 연구들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축의 활성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이나 주변 환경적 요인에 따라 행동억제기질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Gunnar, Kryzer, Van Ryzin, & Phillips, 2011; Nachmias, Gunnar, Mangelsdorf, Parritz, & Buss, 1996). 즉, 억제된 아동이라 할지라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충분한 통제의 경험과 안정성을 느끼는 경험을 할 경우 HPA축 활동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Stright, Gallagher와 Kelley (2008)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양육을 받을 경우, 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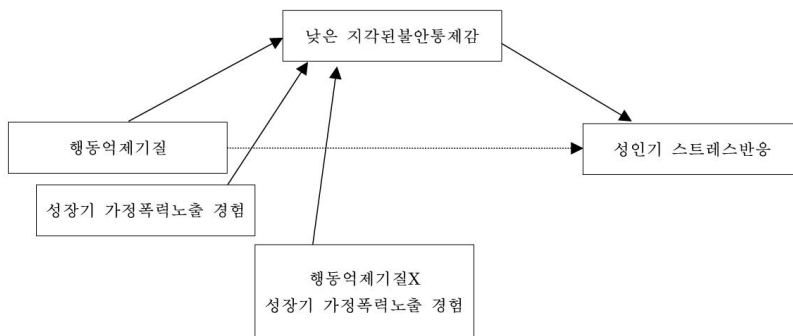


그림 1. 지각된 불안통제감의 통합적 발달모형

다로운 기질 특성의 아동들이 덜 까다로운 아동들보다 학업적, 사회적 기능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인 바 있다. 더 나아가 연구자들은 아동기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경험과 같은 위협적이고 강렬한 환경적 스트레스가 HPA축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초래하며(Kaiser et al., 2018, Fogelman & Canli, 2018), 특히 외상 사건의 통제 가능성 여부에 따라 HPA축의 활성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통제 불가능한 외상과 연관되는 스트레스원은 통제 가능한 스트레스원과 달리 정상적인 코티졸 수준의 순환을 벗어나게 하였다(Meewisse, Reitsma, De Vries, Gersons, & Olf, 2007). 기존 연구들에서 행동 억제기질과 상호작용될 수 있는 가정 환경적 변인으로 주로 애착과 같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및 양육 방식에 관심을 가졌다면(허다연, 이기학, 2017),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통제할 수 없는 외상적 경험으로 지각되는 가정 폭력에 초점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행동억제성향의 부정적인 영향은 가정 폭력 노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장면에서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인지적 취약성에 대한 통합적 발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안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동일한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내는 스트레스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개발 과정은 방법에 제시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행동억제기질과 성장기 가정폭력노출경험이 각각 독립적으로 지각된 불안통제감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폭력노출경험은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불안통제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모형의 전제는 초기 발달과정에서 형성된 불안통제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부의 학습된 정보로 저장된다는 것이다(Gray & McNaughton, 1996). 학습된 정보와 내면화된 인지적 틀은 이와 일치하는 경험들을 선택적으로 취하게 함으로써 일반화된 통제감을 형성하는데 공헌한다. 반복적인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형성된 통제감에 대한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정보에 더욱 저항적이게 된다(Rotter, 1996). 따라서 성장기 지각된 불안통제감의 감소는 일반화된 인지적 취약성으로 발전하여 성인기에 마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행동억제기질 및 성장기 가정폭력노출경험은 성인기 스트레스반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각된 불안통제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고, 지각된 불안통제감은 성인기 스트레스반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2. 행동억제기질은 지각된 불안통제감을 매개로 하여 성인기 스트레스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가정폭력노출경험은 지각된 불안통제감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행동억제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지각된 불안통제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행동억제기질이 매개변수인 지각된 불안통제감을 통해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가정폭력노출 경험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제외하고 491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0명(40.7%), 291명(59.3%) 이었고, 평균 연령은 21.25세($SD=2.58$)였다. 학년 별 분포는 1학년 28.3%, 2학년 22%, 3학년 17.7%, 4학년 25.3%, 대학원생 6.7%로 나타났다.

평가도구

처벌민감성척도. 행동억제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Torrubia와 Caseras(2001)에 의해 개발된 BIS, BAS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인 SPSRQ (Sensitivity to Punishment and Sensitivity to Reward Questionnaire)를 김태연과 이인혜(2010)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RQ에서 행동억제성향을 측정하는 처벌민감성(SP)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새롭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편입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거는 일이 어렵습니까?'),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는 형식이다. 김태연과 이인혜(2010)의 연구에서 처벌민감성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9로 확인되었다.

가정폭력노출척도. 가정폭력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한 갈등관리행동 척도인 CTS(Conflict Tactics Scale)와 CTS2를 장덕희(2001)가 수정·보완한 가정폭력노출척도를 사용하였다. 장덕희(2001)의 도구는 자녀의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간접폭력)과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직접폭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두 폭력 유형 각각은 언어·정서적 폭력(7문항)과(예: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나에게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신체·물리적 폭력(6문항)으로(예: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나에게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구성된다. 장덕희(2001)의 연구에서 확인된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부모폭력목격척도와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척도 각각 .87, .85였다. 본 연구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4로 확인되었으며, 부모폭력목격척도와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척도는 각각 .93, .91이었다.

개정된 한국판 불안통제 질문지. 지각된 불안 통제감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Rapee 등(1996)이 개발한 총 30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오윤희와 오강섭(2009)이 정신과 외래 환자 및 비임상표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개정된 한국판 불안통제 질문지(Korean version of 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Revised K-AC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9개의 문항을 각각 감정통제(10문항), 위협 통제(5문항), 스트레스 통제(4문항)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예: '내 감정은 나와 상관없이 제멋대로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언제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정

확히 알고 있다.’, ‘스트레스에 처하게 되면 통제력을 상실할 거다.’). 오윤희와 오강섭(2009)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0이었으며 각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58~.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8이었으며, 3개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감정통제 .85, 위협통제 .79, 스트레스통제 .50이었다.

스트레스반응척도.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적,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고경봉, 박중규, 김찬형(200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심리적 부적응 반응을 측정하고 있으며 우울, 긴장, 분노, 신체화, 피로, 좌절, 공격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예: ‘만사가 귀찮다’, ‘안절부절못한다’, ‘소화가 안된다’).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는 형식이며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경봉 등(200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6~.9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7이었다.

스트레스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기 이전에 연구 대상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공통의 스트레스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스트레스 상황 목록(이현주, 2009)을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제시하였고, 초기 성인기 동안 경험한 스트레스 상황들 중 목록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직접 본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하여 총 5개의 당면과제 스트레스 시나리오와 6개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두

번째 단계로, 앞서 기술된 시나리오들 중 연구에 사용될 1개의 당면과제 스트레스 시나리오와 1개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선정하기 위해 심리학과 대학원생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서 총 11개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각각에서 지각된 스트레스 강도(‘위의 상황에서 당신은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까?’)를 7점 척도(1점: 전혀 받지 않는다~7점: 매우 받는다)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지각된 통제가능성(‘당신은 이 상황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역시 7점 척도(1점: 전혀 통제할 수 없다~7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시나리오의 안면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시나리오들 중 연구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선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당면과제 스트레스 각각의 유형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시나리오를 하나씩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나리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면과제 스트레스 시나리오

나는 재수를 해서 OO대학교 OO과에 입학했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전공 역시 신중히 생각해 결정했지만, 요즘 들어 전공 공부에 흥미가 떨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게다가 공부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아 공부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학교를 그만 뒤도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어렵게 입학한 학교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시나리오

같은 동아리 선배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내 친구들과 친해지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다 함께 어울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를 빼놓고 선배와 친구들의 만남이 잦아졌다. 선배에게 친구들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지만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 선배는 보란 듯이 친구들과 앞에서 나에게 비아냥거릴 때가 많았고 점점 친구들과라도 멀어지는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사용될 시나리오 2개가 스트레스 강도와 지각된 통제가능성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최종 선정된 당면과제 시나리오와 대인관계 시나리오는 스트레스 강도와 지각된 통제가능성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28)=0.96, p=.34, t(28)=1.79, p=0.08$. 또한 설문지를 작성할 때 먼저 제시된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뒤에 제시된 시나리오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시나리오 제시 순서를 역균형화 하였다. 다만, 자료 분석 과정에서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결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에 최종 결과에서는 스트레스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통과하였다(승인번호: 1040395-201602-030). IRB 규정에 따라 연구 설명 및 참여에 대한 안내는 설문지 앞면에 제공하였다. 설문 이전에 설문 참여 과정에서 심리적 불편감이 느껴질 경우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비밀 보장 및 설문지 폐기 처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총 설문 소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였으며 설문 종료 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 AMOS 21.0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2.0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AMOS 21.00을 사용하여 구성개념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조절 효과 및 조절된 매개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Hayes의 PROCESS(2013)를 이용하여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의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2000번 실시하고 편향교정 신뢰구간(bias 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은 95%로 설정하였다(Preacher & Hayes, 2008; Taylor,

표 1. 두 유형의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문항	시나리오	평균	표준편차	t	p
스트레스강도	당면과제	5.86	1.07	-0.96	.34
	대인관계	6.11	1.28		
통제가능성	당면과제	4.23	1.37	1.79	.08
	대인관계	3.49	1.87		

Mackinnon, & Tein, 2008).

결 과

기초통계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들의 왜도가 절대값 3, 첨도가 절대값 10을 벗어나지 않아 해당 변수들이 정규분포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기질은 불안통제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r=-.63$, $p<.01$, 스트레스반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50$, $p<.01$. 가정폭력노출경험은 불안통제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r=-.17$, $p<.01$, 스트레스반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2$, $p<.01$. 또한 불안통제감은 스트레스반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55$, $p<.01$.

지각된 불안통제감의 매개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행동억제기질이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된 불안통제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였다. 매개모

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 $\chi^2(11, N=491)=25.054$, $p<.01$; CFI=.992; NFI=.986; TLI=.985; RMSEA=.051로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기질’→‘지각된 불안통제감’, ‘지각된 불안통제감’→‘스트레스반응’경로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각각 $-.983$ (S.E.=.075, C.R.=-13.022), $-.770$ (S.E=.112, C.R.=-6.897)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지만 행동억제기질에서 스트레스반응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108 (S.E=.074, C.R.=.793)로 유의하지 않았다, $p=.314$. 따라서 지각된 불안통제감은 행동억제기질과 스트레스반응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폭력노출경험의 주효과와 조절효과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행동억제기질의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지각된 불안통제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행동억제기질과 지각된 불안통제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지각된 불안통제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속변수로 측정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제외한 변인들을 평균중심화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

	1	2	3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행동억제기질				2.48	.43	-.17	.59
2.가정폭력경험	.13**			1.80	.72	.20	.32
3.불안통제감	-.63**	-.17**		3.73	.67	-.24	.36
4.스트레스반응	.50**	.22**	-.55**	2.41	.72	.24	-.58

** $p < .01$.

(mean-centering)하였다. 모형 1에서 행동억제기질을 투입하고 모형 2에서는 행동억제기질과 가정폭력노출경험을 함께 투입함으로써 두 모형 간의 설명량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모형 3에서는 행동억제기질 및 가정폭력노출경험과 함께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각 회귀모형이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전과 후의 모형에서 결정계수 변화량(ΔR^2)이 유의하였다, $\Delta R^2 = .008^{**}$, $\Delta R^2 = .010^{**}$, $p < .01$.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상호작용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

표 3. 조절효과분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지각된 불안통제감					
		<i>B</i>	<i>SE</i>	β	<i>t</i>	<i>R</i> ²	ΔR^2
모형1	상수	3.731	.023		159.44 ^{***}	.395	
	행동억제	-.971	.054	-.628	-17.85 ^{***}		
모형2	상수	3.730	.023		160.85 ^{***}	.402	.008 ^{**}
	행동억제	-.953	.055	-.616	-17.46 ^{***}		
	가정폭력	-.082	.033	-.089	-2.52 ^{**}		
모형3	상수	3.738	.023		160.85 ^{***}	.412	.010 ^{**}
	행동억제	-.929	.055	-.601	-16.95 ^{***}		
	가정폭력	-.089	.032	-.096	-2.75 ^{**}		
	행동억제×가정폭력	-.178	.062	-.100	-2.85 ^{**}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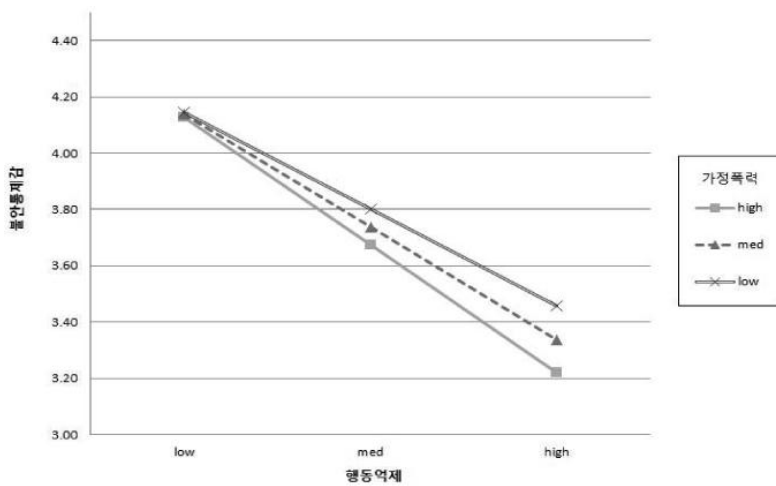


그림 2. 가정폭력노출경험과 행동억제기질의 불안통제감에 대한 조절효과

하기 위해 상호작용 그래프를 그림 2와 같이 표현하였다. 상호작용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각 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1 표준편차를 고(high), 평균을 중간(med), -1 표준편차를 저(low)집단으로 구분한다. 그 결과, 가정폭력노출에 대한 경험 수준에 따라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불안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이 확인되었다. 즉, 가정폭력노출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경우 높은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불안통제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졌다.

표 3의 모형 2에서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지각된 불안통제감을 설명하는 주효과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p < .01$, 가정폭력노출경험은 순수조절변수이기보다는 유사조절변수라고 할 수 있다. 조절변수는 순수조절변수와 유사조절변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절회귀식에서 상호작용항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조절변수항은 유의하지 않은 경우 순수조절변수(pure moderator)이며, 상호작용항뿐만 아니라 조절변수의 주효과까지 유의하게 나타나면 유사조절변수이다(quasi moderator). 유사조절변수는 특정한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유의미한 독립변수로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친다(Sharma, Durand, & Gur-Arie, 1981). 따라서 유사조절변수인 가정폭력노출경험은 지각된 불안통제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불안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노출경험의 주효과와 조절효과를 살펴본 앞의 결과들은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지각된 불안통제감을 감소시키고 행동억제기질과 상호작용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조절된 매개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가 존재하는 매개모형에 조절변수가 투입된 모형이다. 메트릭 조절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모형의 경우, 모형의 형태를 미리 가정하지 않으며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최종 모형을 결정하게 된다(배병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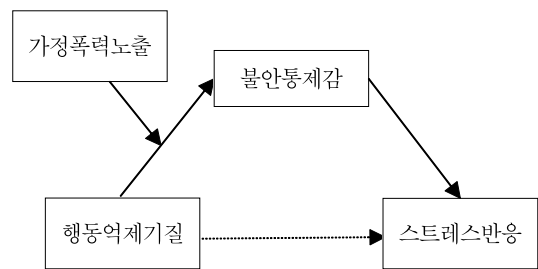


그림 3. 조절된 매개효과의 개념적 모형

그림 3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은 행동억제기질→지각된불안통제감→스트레스반응의 매개경로를 가정하고 있으며, 행동억제기질과 불안통제감 간의 관계를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조절하는지 검증하는 모형이다.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과정을 위해 Muller, Judd와 Yzerbyt(2005)가 제안한 가정을 충족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지각된 불안통제감의 단순 매개모형과 가정폭력노출경험의 조절효과는 앞서 검증하였기에 이에 대한 결과해석은 생략하였다. Muller 등(2005)이 제안한 통합 모형은 다음의 3개의 회귀식으로 표현된다.

$$\text{식(1): } Y = \beta_{40} + \beta_{41}X + \beta_{42}Mo + \beta_{43}XMo + \epsilon_4$$

$$\text{식(2): } Me = \beta_{50} + \beta_{51}X + \beta_{52}Mo + \beta_{53}XMo + \epsilon_5$$

$$\text{식(3): } Y = \beta_{60} + \beta_{61}X + \beta_{62}Mo + \beta_{63}XMo + \beta_{64}Me + \beta_{65}MeMo + \epsilon_6$$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먼저, 조절회귀모형의 식(1)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전체 효과는 조절 변수의 수준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즉, β_{43} 이 유의한 결과 값을 얻으면 안된다. 대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 또는 방향이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James와 Brett(1984)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해당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식(2)와 식(3)의 조절 변수가 투입된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한다(β_{53} , β_{64} 는 유의한 값이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 PROCESS by Hayes(2013)를 사용하여 전체 매개과정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인 간접효과의 크기나 방향이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정선호, 서동기, 2016). 연구모형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먼저, 식(1)에서 행동억제기질이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계수가 유의하고, $b_{41}=.793$, $t=11.987$, $p<.001$,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아, $b_{43}=.069$, $t=.913$, 조절된 매개효과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행동억제기질이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가정폭력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지는 않았다. 그 다음 단계로,

표 4. 조절된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Y: 스트레스반응		Y: 불안통제감		Y: 스트레스반응	
	b	t	b	t	b	t
X: 행동억제기질	.793 (b_{41})	11.987***	-.929 (b_{51})	-16.946***	.420 (b_{61})	5.339***
Mo: 가정폭력	.159 (b_{42})	4.065***	-.089 (b_{52})	-2.744**	.126 (b_{62})	3.402***
XMo: X*Mo	.069 (b_{43})	.913	-.178 (b_{53})	-2.851**	.097 (b_{63})	.932
Me: 불안통제감					-.411 (b_{64})	-7.982***
MeMo: Me*Mo					.091 (b_{65})	1.334

주. 밑줄로 표시된 회귀계수 추정치는 연구모형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회귀계수를 나타냄. 위 식의 β 는 표준화된 회귀 계수, 표의 b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나타냄.

** $p<.01$, *** $p<.001$.

표 5. 가정폭력 조건에 따른 행동억제기질의 간접효과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신뢰구간 95%	
			LLCI	ULCI
-1SD	.3436	.0606	.2384	.4741
가정폭력 평균	.3987	.0569	.2951	.5174
+1SD	.4538	.0621	.3412	.5777

식 (2)에서 행동억제기질과 가정폭력노출경험의 상호작용항이 불안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 $b_{53} = -.178$, $t = -2.851$, $p < .01$, 식 (3)에서는 b_{64} 값이 유의하고 b_{65} 값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지각된 불안통제감이 스트레스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이러한 관계가 가정폭력노출경험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로 행동억제기질이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가정폭력노출경험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Hayes의 PROCESS(2013)를 이용하여 가정폭력노출경험의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와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표 5에서 가정폭력노출경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조건부 간접효과와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행동억제기질이 매개변수인 지각된 불안통제감을 통해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가정폭력노출 경험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된 불안통제감 발달을 방해하는 기질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부적응적인 스트레스반응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불안 통제감을 매개로 하여 성인기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행동억제기질의 영향을 가정폭력경험이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살펴보면, 행동억제기질 및 성장기 가정폭력노출경험은 성인기 스트레스반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각된 불안통제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지각된 불안통제감은 성인기 스트레스반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행동억제기질과 스트레스반응 간의 관계를 지각된 불안통제감이 매개하는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였으며, 지각된 불안통제감이 행동억제기질과 스트레스반응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행동억제성향을 가진 아동들이 독립적으로 환경에 관여하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적, 내부적 사건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 낮아진다는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이다(Fox, Henderson, Marshall, Nichols, & Ghera, 2005). 이와 같은 결과는 기질적 소인이 인지적 편향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편향이 심리적 증상을 야기한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을 지지한다(Pérez-Edgar et al., 2010, 2011; Wolfe & Bell, 2007). 또한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지각된 불안통제감이 낮을수록 더 부적응적인 스트레스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가정폭력노출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노출경험은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불안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즉, 가정폭력노출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경우 높은 행동억제기질이 인지적 취약성(지각된 불안통제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는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개인의 취약성이 기질이라는 원재료를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됨을 시사하며, 억제된 성향의 발달적 정교화

에서 가족 및 환경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맥을 같이한다(Nachmias et al., 1996).

더 나아가 가정폭력노출경험은 기질에 대한 조절효과뿐만 아니라 행동억제기질을 통제 한 후에도 지각된 불안통제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시절의 가정 폭력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낮은 개인적 통제감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Umberson et al., 1998)와 일치한다. Chorpita와 Barlow(1998)는 발달 시기 동안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반복되면 개인은 낮은 통제감과 관련한 인지적 틀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위협적인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경향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성장기 시절 행동억제성향이 개인의 통제감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노출경험 자체가 독립적으로 개인의 통제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Muller 등(2005)이 제안한 모형에 따라 행동억제기질과 성인기 스트레스반응 사이에서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지각된 불안통제감의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고,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불안통제감을 통해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가정폭력노출경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즉, 가정폭력노출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경우 행동억제기질이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증가하였다.

폭력적인 가정환경 변인은 환경 자극에 민감하고 억제된 기질 성향이 인지적 취약성을 발달시키는 경로를 강화시킨다. 반대로 충분한 통제경험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가정환경은 민감한 기질 성향의 유해한 영향을 완하시킨다(Gunnar et al., 2011). 한편,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결과 중 하

나는 행동억제기질의 수준이 낮은 경우 가정폭력노출경험에 따라 지각된 불안통제감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반응이 아동의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긍정적인 기질이 가정폭력노출경험의 유해한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elsky & Pluess, 2009).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예견하는 낮은 지각된 불안통제감에 대한 발달적 기원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행동억제기질과 폭력적인 가정환경이 지각된 불안통제감을 거쳐 성인기의 스트레스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정교화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불안통제감을 통해 불안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면(김소연, 2014; 오윤희, 2006; Viana & Gratz, 2012), 본 연구는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불안통제감을 매개로 하여 보다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모로부터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한 경험과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포함한 성장기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초기 성인기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가족 맥락이 아동의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정상적 기능의 발달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기질과 가정환경의 상호작용을 알아본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부모의 양육에 초점을 맞추었지만(Belsky & Pluess, 2009; Mezulis et al., 2006), 본 연구는 성장기에 인지적 취약성을 발달시키는 환경 변인을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 확장시켰다.

셋째, 기존의 스트레스반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들의 평소 스트레스반응을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통의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였다. 이를 통해 취약성-스트레스 모형에 따라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인지적 취약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가정학 발달적 통합모형은 성인기의 부적응적인 스트레스반응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서 개인의 인지적 취약성을 발달시킨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를 갖는다. 즉, 본 연구결과는 개인의 통제 신념을 수정하고 지각된 통제감을 증가시키는 치료를 통해 부적응적인 심리적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경험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지각된 통제감을 감소시킨 개인의 역사를 고려하기 위해 기질과 가정환경변인을 모두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치료 과정에서 개인의 인지적 취약성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경험과 같은 환경 변인이 개인의 통제 소재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개인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발달 과정에서 충분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질적 소인의 악영향을 상쇄하고 스트레스 반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이 강조된다. 특히 폭력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무기력과 무망감이 개인적인 통제감이나 부적응적인 인지적 요소로 발전되지 않기 위해 가정 폭력에 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 위기 개입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경기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성인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 집단을 포함시켜야 하겠다. 스트레스 시나리오 역시 대학생이 몰입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였으므로 연구대상이 확장된다면 다양한 집단에 적용 가능한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읽고 자신이 그 상황에 있다고 가정한 채로 스트레스반응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대한 몰입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그 정도를 측정하여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자기보고형 질문지만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했을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설문 내용은 개인에게 민감한 질문일 수 있어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노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의 발달적 통합 모형을 가정하였지만 횡단적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변인들간 인과적 관계를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실제 성장기의 기질과 환경의 영향이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확인된 가정폭력노출경험과 관련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보호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다른 개인적, 환경적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 내적통제

소재, 낙관성과 같은 개인적 변인과 사회적 지지 체계,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과 같은 사회·환경요인이 아동기 외상 사건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이라고 제안하였다(Magolin, 2005; O'Brien et al., 2013). 이에 기질 및 가정환경 변인의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이 추후 연구된다면 임상적 함의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행동억제기질과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상호작용하여 지각된 불안통제감이라는 인지적 취약성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초기 성인기 부적응적인 스트레스반응으로 이어지는 발달적 경로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참 고 문 헌

고경봉, 박중규, 김찬형 (2000). 스트레스반응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4), 707-719.

김경원, 양수진 (2018).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3), 139-161

김교현, 전경구,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9-37

김소연 (2014). 행동억제기질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증상에 미치는 영향: 불안통제감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수진, 박기환(2017). 사회불안의 해석편향에 미치는 행동억제와 부모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6(4), 617-629.

김재엽, 조학래, 양혜원 (2003).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와 개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3), 27-54.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태연, 이인혜 (2010). 강화민감성이 도박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3), 685-707.

배병렬 (2015).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분석. 서울: 청담.

오윤희 (2006). 사회불안장애 발병요인의 구조적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오윤희, 오강섭 (2009). 개정된 한국판 불안통제 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995-1010.

이현주 (2009). 관조적 자기-자비와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된 통제가능성에 따른 대처방식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혜림 (2013). 청소년의 처벌민감성과 강화민감성이 불안, 우울,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12), 567-593.

이혜진 (2004). 부모애착, 행동억제, 성인애착이 초기 성인기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덕희 (2001). 가정폭력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7(3), 577-600.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최미경, 조용래 (2005). 생활 스트레스와 지각된 불안통제감 및 대처양식이 대학생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81-298.

최지수, 양재원 (2018). 행동억제 및 활성화체계와 해석편향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7(3), 301-311.

최혜정 (2012). 부부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자녀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157-182

- 허다연, 이기학 (2017). 양육행동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서표현갈등과 행동억제기질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18(1), 133-15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sky, J. (2005). *Origins of the social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child development*. New York: Guilford.
- Belsky J., & Pluess M. (2009)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rearing experience: the case of child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4), 396-404
- Berkman, E. T., Lieberman, M. D., & Gable, S. L. (2009). BIS, BAS, and response conflict: Testing predictions of the revised reinforcement sensitivity the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5), 586-591.
- Bollini, A. M., Walker, E. F., Hamann, S., & Kestler, L. (2004). The influence of perceived control and locus of control on the cortisol and subjective responses to stress. *Biological Psychology*, 67(3), 245-260.
- Cerezo, M. A., & Frias, D. (1994). Emotional and cognitive adjustment in abus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8(11), 923-932.
- Chorpita, B. F., & Barlow, D. H. (1998). The development of anxiety: the role of control in the early environ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4(1), 3-21.
- Cloninger, C. R., & Svrakic, D. M. (1997). Integrative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psychiatric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iatry*, 60(2), 120-141.
- Coplan, R. J., Wilson, J., Frohlick, S. L., & Zelenski, J. (2006). A person-oriented analysis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behavioral activation in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5), 917-927.
- Corr, P. J., & Perkins, A. M. (2006). The role of theory in the psychophysiology of personality: From Ivan Pavlov to Jeffrey Gra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62(3), 367-376.
- Fogelman, N., & Canli, T. (2018). Early life stress and cortisol: A meta-analysis. *Hormones and Behavior*, 98(9), 63-76.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Fox, N. A., Henderson, H. A., Marshall, P. J., Nichols, K. E., & Ghera, M. M. (2005). Behavioral inhibition: linking biology and behavior within a developmental framework.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1), 235-262.
- Gallagher, M. W., Bentley, K. H., & Barlow, D. H. (2014). Perceived control and vulnerability to anxiety disorders: A meta-analytic review.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8(6), 571-584.
- Gray, J. A., & McNaughton, N. (1996). *The neuropsychology of anxiety: Reprise*.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Grote, N. K., Bledsoe, S. E., Larkin, J., Lemay, E. P., & Brown, C. (2007). Stress exposure and depression in disadvantaged women: The protective effects of optimism and perceived control. *Social Work Research*, 31(1), 19-33
- Gunnar, M. R., Kryzer, E., Van Ryzin, M. J., & Phillips, D. A. (2011). The import of the cortisol rise in child care differs as a function of behavioral inhibi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7(3), 792-803.
- James, L. R., & Brett, J. M. (1984). Mediators,

- moderators, and tests for medi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2), 307-321.
- Kagan, J. (1994). *The nature of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s.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7). The physiology and psycholog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6), 1459-1473.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4849), 167-171.
- Kashdan, T. B., Barrios, V., Forsyth, J. P., & Steger, M. F. (2006). Experiential avoidance as a generalized psychological vulnerability: Comparisons with coping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9), 1301-1320.
- Kessler, R. C., Price, R. H., & Wortman, C. B. (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1), 531-572.
- Kaiser, R. H., Clegg, R., Goer, F., Pechtel, P., Beltzer, M., Vitaliano, G., Olson, D. P., Teicher, M. H., & Pizzagalli, D. A. (2018). Childhood stress, grown-up brain networks: corticolimbic correlates of threat-related early life stress and adult stress response. *Psychological Medicine*, 48(7), 1157-1166.
- Kobasa, S. C., Maddi, S. R., & Kahn, S. (1982). Hardiness and health: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1), 168-177.
- Lonigan, C. J., & Phillips, B. M. (2001). Temperamental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anxiety disorders. In Vasey, M. W. & Dadds, M. R. (Eds.),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pp. 60-9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rgolin, G. (2005).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exploring developmental pathways to diverse outcom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 72-81.
- Meewisse, M. L., Reitsma, J. B., De Vries, G. J., Gersons, B. P., & Olff, M. (2007). Cortisol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dult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1(5), 387-392.
- Mezulis, A. H., Hyde, J. S., & Abramson, L. Y. (2006). The developmental origins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temperament, parenting, and negative life events in childhood as contributors to negative cognitive style. *Developmental Psychology*, 42(6), 1012-1025.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863.
- Nachmias, M., Gunnar, M., Mangelsdorf, S., Paritz, R. H., & Buss, K. (1996). Behavioral inhibition and stress reactivity: The moderating role of attachment security. *Child Development*, 67(2), 508-522.
- O'Brien, K. L., Cohen, L., Pooley, J. A., & Taylor, M. F. (2013). Lifting the domestic violence cloak of silence: Resilient Australian women's reflected memories of their childhood experiences of witnessing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8(1), 95-108.
- Ollendick, T. H., & Grills, A. E. (2016). Perceived Control, Family Environment, and the Etiology of Child Anxiety-Rivisited. *Behavior Therapy*, 47(5), 633-642.
- Pinto-Meza, A., Caseras, X., Soler, J., Puigdemont, D., Pérez, V., & Torrubia, R. (2006). Behavioural inhibition and behavioural activation systems in current and recovered major depression participa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2), 215-226.

- Pérez-Edgar, K., Bar-Haim, Y., McDermott, J. M., Chronis-Tuscano, A., Pine, D. S., & Fox, N. A. (2010). Attention biases to threat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early childhood shape adolescent social withdrawal. *Emotion, 10*(3), 349-357.
- Pérez-Edgar, K., Reeb-Sutherland, B. C., McDermott, J. M., White, L. K., Henderson, H. A., Degnan, K. A., Hane, A. A., Pine, D. S., & Fox, N. A. (2011). Attention biases to threat link behavioral inhibition to social withdrawal over time in very young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6), 885-895.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apee, R. M., Craske, M. G., Brown, T. A., & Barlow, D. H. (1996). Measurement of perceived control over anxiety-related events. *Behavior Therapy, 27*(2), 279-293.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28.
- Sharma, S., Durand, R. M., & Gur-Arie, O. (1981).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291-300.
- Straus, M. A., Gelles, R. J., & Smith, C.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New York: Transaction Publishers.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tright, A. D., Gallagher, K. C., & Kelley, K. (2008). Infant Temperament Moderates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irst Grade. *Child Development, 79*(1), 186-200.
- Sturge-Apple, M. L., Davies, P. T., Cicchetti, D., & Manning, L. G. (2012). Interparental violence, maternal emotional unavailability and children's cortisol functioning in family contexts. *Developmental Psychology, 48*(1), 237-249.
- Taylor, A. B., MacKinnon, D. P., & Tein, J. (2008). Tests of the three-path mediated effect.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2), 241-269.
- Torrubia, R., Avila, C., Moltó, J., & Caseras, X. (2001). The Sensitivity to Punishment and Sensitivity to Reward Questionnaire (SPSRQ) as a measure of Gray's anxiety and impulsivity dimens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6), 837-862.
- Umberson, D., Anderson, K., Glick, J., & Shapiro, A. (1998). Domestic violence, personal control, and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442-452.
- Wolfe, C. D., & Bell, M. A. (2007). The integration of cognition and emotion during infancy and early childhood: Regulatory processe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working memory. *Brain and Cognition, 65*(1), 3-13.
- Viana, A. G., & Gratz, K. L. (2012). The role of anxiety sensitivity, behavioral inhibition, and cognitive biases in anxiety symptom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8*(10), 1122-1141.

원고접수일: 2019년 3월 12일

논문심사일: 2019년 3월 22일

게재결정일: 2019년 10월 31일

The Impact of Behavioral Inhibition on Early Adulthood Stress Response: The Moderated Mediation Impact of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nd Perceived Anxiety Control

Jae-Jin Yun

Kee-Hwa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behavioral inhibition on early adulthoods' stress response and if the perceived anxiety control mediates the relations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adulthood stress response. In addition to this mediated model, the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ng impact of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through perceived anxiety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tress response. For this study, 512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ere administe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Sensitivity to Punishment Questionnaire, Scale of Exposure to Family Violence, Korean version of the 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and the Stress Response Inventory with stress scenarios. Stress scenarios were developed through a pilot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the results supported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anxiety control on relations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adulthood stress response. Secon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moderated the mediating impact of behavioral inhibition on stress response through perceived anxiety control and also had main impact on perceived anxiety control.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behavioral inhibition, perceived anxiety control, stress response, exposure to family violence, moderated mediation effect